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인문·체능계>

1.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그이는 늘 흰 가운을 입고 있다. 그리고 여자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성조각가를 상상할지도 모르겠다. 아니, 그 짐작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이가 빚어내는 작품도 일종의 조각이라면 조각일 수도 있다.

그이는 매일 9시에 일터로 나와서 다시 9시가 되면 가운을 벗고 집으로 돌아간다. 일터에서의 그이는 다소 무뚝뚝하고 뻣뻣하다. 남하고 싱거운 소리를 나누는 일도 거의 없다. 잘 웃지도 않는다. 오히려 늘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 얼굴로 그이는 늘 일을 하고 있다. 그이가 만드는 작품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므로 하기야 설 틈도 많지 않다. 묵묵히 일만 하고 있는 그이를 우리는 김밥아줌마라고 부른다. 따라서 그이가 만드는 작품은 자연스럽게 김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이의 김밥은 보통의 김밥과는 아주 다르다. 언제 먹어도 그이만이 낼 수 있는 담백하고 구수한 맛이 사람을 끌어당긴다. 그이의 김밥은 절대 맛을 속이지 않는다.

김밥아줌마는 작품을 만들 때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막 화를 낸다. 누군가 쳐다보면 마음이 흔들려서 실패작이 나온다는 것이다. 김밥을 만들고 있을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척을 하지 않는다. 한 번 더 말을 시키면 여지없이 성질을 내며 일손을 놓아버린다. 그이는 파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김밥을 만드는 그 행위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나]

현대사회에서 예술을 비롯한 문화상품은 다른 상품과 자신의 차별성 부각을 위해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새로움은 ‘유사 새로움’이다. 문화산업은 정치적 검열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산업적 검열을 만들어 내는 시스템이 된다. 독점 문화산업이 지배하는 국가는 정치적으로 자유주의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열의 기제는 여전히 작동한다. 독재국가에서 검열의 주체가 정부였다면, 산업이 문화와 예술을 장악하고 있는 국가에서 검열관은 사적 영역으로 분산된다.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예술은 문화산업에 의해 통제된다. 문화산업은 늘 새로운 기획, 참신한 아이디어, 충격적인 영화, 새로운 스타와 같은 구호를 선전물로 사용하지만, 그 새로움은 진정한 새로움이 아니다. 문화산업은 유희 이상의 것이 되고자 하지 않으며, 진지함이나 진실성에 무관심하다. 문화산업의 목표는 이윤이다. 돈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라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진다.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문화산업은 ‘유사 새로움’을 위해 아방가르드*의 외양을 차용한다. 하지만 그것이 아방가르드 정신의 수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아방가르드 : 20세기 초 유럽에서 일어난, 기존 예술의 관념이나 형식을 부정하는 혁신적인 예술운동을 의미한다.

[다]

히틀러는 바그너에 심취한 사람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종군할 때에도 배낭에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악보를 넣어갈 정도였다고 전해진다. 실제 바그너의 음악 자체에 국수주의나 파시즘적 정서와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는 해석도 있다.

바그너의 악극 <파르지팔>은 중세의 ‘성배 전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로, 바그너 자신이 ‘무대 신성 축전극’이라고 부른 그의 생애 최후의 악극이다. ‘성배’란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만찬에서 쓴 식기로, 그것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상처에서 솟은 피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11세기부터 12세기에 걸쳐 이와 같은 ‘성유물’에 대한 숭배가 유럽 전역에 퍼졌다. 당시 사람들은 성유물들이 진짜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파르지팔>에서 성배를 찾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의 은유이다. 암묵적으로 소박하고 순진한 그리스도교도인 파르지팔의 모습에 교활하고 신용할 수 없는 ‘유대인’이 대비된다. 유대인을 타자로서 배제하고 그것과 다른 ‘그리스도교도’, ‘아리아인’, ‘독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나르시시즘적으로 강조하는 데 성배 전설이 크게 기여한 셈이다. 바그너는 이 전설을 먼 과거에의 동경, 헌신과 자기희생에의 도취, 초인이나 천재의 찬미와 같은 낭만주의 미학에 근거한 거대한 회화극으로 그려내었다.

바그너의 음악에 자주 쓰이는 것이 ‘무한선율’이다. 무한선율이란 ‘리듬적·화성적 단락의 느낌, 종결의 느낌이 없는 자유로운 선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네, 그럼 여기서 일단락.”이라거나 “자, 이걸로 끝.”이라고 하는 마디를 의식적으로 없앤 것이다. 높이 올라가다가 하면 다시 내려오고, 내려갔다가 싶으면 다시 올라간다. 커다란 음향이 귀를 울리는가 하면 가늘게 잿아들고, 사라졌는가 하면 다시 울려 퍼진다. 끝없이 파도치고 너울거리며 계속된다. 드디어 끝났나 싶으면 다시 다음 물결의 너울이 밀려온다.

바그너의 작품은 물결의 너울거림에 몸을 맡기게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특징이다. 개인의 취향이나 취미, 의심이나 비판, 위화감이나 저항 등의 감정을 일단 잊혀두고, 말하자면 몰주체·몰아의 경지로 나아가 거기에 몸을 싣고 크나큰 물결의 너울거림에 몸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그너의 음악에서 감명과 도취를 얻는 최상의 방법이다. 또 그런 태도만큼 파시즘에 바람직한 것도 없으리라.

[라]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마]

나는 항상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스튜디오는 나와 사람들을 주변 환경에서 격리시킨다. 가끔씩 스튜디오에서는 외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시간이 멈춘다. 나는 스튜디오에 머물러 있고, 사람들은 사진을 찍기 위해 나를 찾아온다. 나는 짧지만 강렬한 친밀감을 공유한다. 그러나 그 친밀감은 일시적일 뿐이다. 그것은 어떤 과거도, 미래도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무대가 끝나면(사진을 찍고 나면) 사진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사진과 일종의 낭패감만 남을 뿐. 그들은 떠나고, 나는 그들을 모른다. 나는 그들이 말했던 것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일주일 뒤 어느 곳에선가 한 방에서 그들을 만난다고 해도, 그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오로지 사진을 통해

서만 그들을 알고 있다. 아마도 이것이야말로 사진작가가 된다는 것의 본질일 것이다. 나에게 현실적 관계나 지식은 무의미하다. 나는 다만 사진을 통해 세계를 인식할 따름이다.

[바]

어느 팔레스타인 작가가 쓴 이야기이다. 숲에서 잡혀와 우리 속에서 길들여지게 된 호랑이가 있었다. 잡혀온 첫 날 호랑이는 끈질기게 으르렁댔으며 우리의 쇠창살을 이빨로 물어뜯으려고 했다. 호랑이는 자유로운 존재였고 숲의 기억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조련사는 호랑이를 굶김으로써 대응했다. 그는 여유롭게 중얼거렸다.

“무척 사나운 호랑이로군. 하지만 당나귀처럼 굴게 될 거야. 내가 먹이를 갖고 있는데 주지 않을 테니까.”

이윽고 호랑이는 배가 고파졌으며, 조련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말했다. 조련사는 답했다.

“고양이처럼 야옹거리면 고기를 주지.”

호랑이는 거절했다. 그는 호랑이지 고양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틀 후 굶주림에 굴복하여 호랑이는 조련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마치 고양이처럼 야옹거렸다.

조련사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다. 어느 날 호랑이가 먹이를 달라고 하자 조련사는 당나귀처럼 히힝거리라고 요구했다. 백수의 왕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호랑이는 그 요구를 거부했으며, 며칠을 먹지 않고 버텼다. 그러나 우리에게 갇힌 지 열흘째 되는 날, 너무나 배가 고팠던 호랑이는 결국 당나귀처럼 히힝댔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은 조련사는 고기가 아닌 한 더미의 건초를 던져주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호랑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후 호랑이는 숲의 기억을 잊어 버렸다.

작가는 말한다. “요즘은 조련사도 호랑이도 쇠우리도 무대에서 사라졌다. 호랑이는 시민이 되고 쇠우리는 국가의 수도가 되었다.”

나는 나의 존엄성과 인간다움, 깨끗한 영혼을 지키려고 애쓴다. 첫째 날의 호랑이처럼 우리의 쇠창살을 내 이빨로 물어뜯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미 내 머리카락이 하얗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열 번째 날의 호랑이가 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영혼이 언제라도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나, 동시에 싸움으로 내 영혼이 얼룩지지 않도록 경계할 것이다. 오래 지속된 싸움이 인간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음을 나는 안다. 비록 그것이 자유를 위한 투쟁일지라도 말이다. 나는 내 영혼이 증오와 어둠의 바다에서 헤엄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문제 I]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 배점 40점]

[문제 II]

제시문 [바]의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 [라], [마]에 나타난 상황을 평가하시오. [1,001자 이상 ~ 1,100자 이하 : 배점 60점]

2.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답안

[문제1]

제시문 [가]와 [나]는 예술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가]는 예술창작활동 그 자체에 몰두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그리고 있다. 많은 작품을 생산해 판매함으로써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예술성을 추구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김밥 마는 아줌마를 통하여 보여준다. 여기서 예술가의 관심은 창작과정 그 자체에 집중하여 최대한 결함이 없는 완벽한 예술작품을 생산해 내는 것에 있다. 제시문 [나]는 예술을 포함한 문화상품이 그 자체의 본연의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상업적 목적에 이용되는 사실을 비판적으로 묘사한다. 이 경우 예술적 완성도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유일한 관심은 이윤창출 가능성 여부이다.

[가]와 [나]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는 예술의 기능에 관한 것이다. [가]는 예술의 기능이 예술 활동 그 자체, 즉 예술가의 자기실현과 만족에 있는 반면, [나]는 그것이 이윤 추구의 수단임을 보여준다. 둘째는 예술작품의 가치에 관한 것이다. [가]는 예술가의 순수하고 진지한 열정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귀결되어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예를 제시하는 반면 [나]는 상업성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상품은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단지 거짓 새로움에 불과함을 비판하고 있다. (652자)

[문제2]

제시문 [바]는 현실과의 긴장 속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지키려는 예술정신을 보여준다. 제시문에 나오는 작가는 현실에 순응한 열혈재의 호랑이와 다르게,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동시에 이 작가는 첫째 날의 호랑이와도 다르게, 현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에 거리를 둔다. 이 작가는 현실에 대한 순응과 맹목적 저항 모두에 거리를 둔다. 그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부조리한 현실과 투쟁하고, 동시에 싸움 자체에 매몰되지 않으며 인간다움을 지키려고 한다. [바]는 현실과의 긴장을 갖춘 깨어 있는 정신을 가지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 [라], [마]에 나타난 상황을 평가해 보겠다. [다]에서 제시된 바그너의 작품은 음악의 너울거림에 감상자가 휩쓸리도록 한다. 그 결과 바그너의 선율에 도취된 개인은 주체성과 비판정신을 잃게 된다. 그리고 도취된 개인은 파시즘과 같은 이데올로기에 휩쓸릴 위험이 있다. [다]는 현실과의 긴장을 잃은 예술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바]의 관점에서는 [다]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라]는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서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바람을 노래하고 있다. [라]에서 ‘눈’은 화자가 지향하는 순수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거짓된 현실을 거부하는 비타협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침을 하자’라는 어구를 반복하여,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는 예술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바]의 관점은, 깨어있는 예술정신을 강조하는 [라]의 상황과 상통하며, [바]는 [라]에 동의할 것이다.

한편 [마]는 현실과 단절된 예술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마]의 사진사 ‘나’는 사진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과 현실적인 관계를 가지려 하지 않으며, 스튜디오의 사진작업을 사회와 격리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마]는 현실에 무관심하며 예술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는 예술지상주의적 입장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실과 긴장을 유지하면서, 주체성을 견지하려는 비판정신을 강조하는 [바]는 [마]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1,013자)

3.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채점 기준

1. 점수 배정

- ① 만점 : 각 논제 당 100점(두 논제 도합 200점)
- ② 기본 점수 : 60점
 - 답안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쓰면 60점
 - 백지 및 답안과 관련 없는 글, 특별한 표시는 0점
- ③ 기준 점수 :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0점)

2. 채점 기준 :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 ① 띄어쓰기를 포함한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 ③ 백지이거나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해당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

2) 원고분량에 따른 감점

- ① 원고분량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술 내용을 중시)
- ② 아래의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조금 벗어났다고 해도 일률적으로 감점 처리하지 않는다.
- ③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논제 I> (601자 이상~700자 이하)

- 500자 미만: 감점 20점
- 500자 이상~550자 미만: 감점 10점
- 750자 이상~800자 미만: 감점 10점
- 800자 이상: 감점 20점

● <논제 II> (1001자 이상~1100자 이하)

- 900자 미만 : 감점 20점
- 900자 이상~950자 미만: 감점 10점
- 1150자 이상~1200자 미만: 감점 10점
- 1200자 이상 : 감점 20점

3) 원고분량에 따른 기타 기준

- ① 답안의 마지막 행에 한 자라도 쓸 경우 한 행을 채운 것으로 간주한다.
- ② 답안 가운데 한 행 이상을 지우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행은 공란으로 간주한다.
- ③ 주어진 필기도구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란으로 간주한다. (예; 연필로 작성한 부분은 무효 처리)

3. 채점 기준 : 내용평가

1) <논제 I>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 ① 제시문 [가]의 내용을 제대로 요약하면 10점 가점
- ② 제시문 [나]의 내용을 제대로 요약하면 10점 가점
- ③ 제시문 [가], [나] 논지의 차이가 잘 드러나게 서술하면 10점 가점
- ④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서술했으면 10점 가점(창의성 및 표현력 등을 중시)

※ 채점 시 유의사항

- (1) 제시문 [가]는 예술창작활동 그 자체에 몰두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그리고 있다. 많은 작품을 생산해 판매함으로써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예술성을 추구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김밥 마는 아줌마를 통하여 보여준다. 제시문 [나]는 예술을 포함한 문화상품이 그 자체의 본연의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상업적 목적에 이용되는 사실을 비판적으로 묘사한다. 이 경우 예술적 완성도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유일한 관심은 이윤창출 가능성 여부이다.
- (2)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파악해서 요약하고 그 논지의 차이(출제자의 의도 파악)를 대비적으로 명확하게 서술한 경우 높게 평가를 한다.
- (3) 각 제시문의 내용에 대한 요약과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는데,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보다는 얼마나 자신의 언어로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였는가를 중요시한다.

2) <논제 II>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 ① 제시문 [바]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여 서술하면 10점 가점
- ② 제시문 [바]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상황을 제대로 평가했으면 10점 가점(부정적, 비판적 평가)
- ③ 제시문 [바]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의 상황을 제대로 평가했으면 10점 가점(긍정적 평가)
- ④ 제시문 [바]의 관점에서 제시문 [마]의 상황을 제대로 평가했으면 10점 가점(부정적, 비판적 평가)
- ⑥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서술했는가를 중시한다.

※ 채점 시 유의사항

- (1) 제시문 [바]는 현실과의 긴장 속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지키려는 예술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에 나오는 작가는 현실에 순응한 열흘째의 호랑이와 다르게,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동시에 이 작가는 첫째 날의 호랑이와도 다르게, 현실에 대한 즉각적 대응에 거리를 둔다. 현실에 대한 순응과 맹목적 저항 모두에 거리를 두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부조리한 현실과 투쟁하고, 동시에 싸움

자체에 매몰되지 않으며 인간다움을 지키려고 한다. 현실과의 긴장을 견지하는 깨어 있는 정신을 가지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 (2) 제시문 [다]에 제시된 바그너의 작품은 감상자들을 몰아의 경지에 휩쓸리도록 할 수 있다. 그 결과 바그너의 선율에 도취된 개인은 주체성과 비판정신을 잃고 파시즘과 같은 이데올로기에 휩쓸릴 위험이 있다. 이렇듯 [다]는 현실과의 긴장을 잃은 예술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바]의 관점에서는 [다]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3) 반면에 제시문 [라]는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서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바람을 노래하고 있다. [라]에서 ‘눈’은 화자가 지향하는 순수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거짓된 현실을 거부하는 비타협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침을 하자’라는 어구를 반복하여,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는 예술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바]의 관점은, 깨어있는 예술정신을 강조하는 [라]의 상황과 상통한다.
- (4) 제시문 [마]는 현실과 단절된 예술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마]의 사진사 ‘나’는 사진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과 현실적인 관계를 가지려 하지 않으며, 스튜디오의 사진작업을 사회와 격리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마]는 현실에 무관심하며 예술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는 예술지상주의적 입장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실과 긴장을 유지하면서, 예술가로서의 주체성을 견지하려는 비판정신을 강조하는 [바]의 입장에서는 [마]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 제시문 출전

[가]: 양귀자, 「이웃과 하는 상생과 공존」, 『고등학교 문학』, 미래원, 2014, 408-409쪽.

[나]: 노명우, 『계몽의 변증법-야만으로 후퇴한 현대』, 살림, 2005, 241-242쪽.

[다]: 서경식, 김혜신 옮김, 『디아스포라 기행』, 돌베개, 2016, 62-71쪽

[라]: 김수영, 「눈」, 『고등학교 문학』, 지학사, 2013, 243쪽.

[마]: 수전 손택, 이재원 옮김, 『사진에 관하여』, 이후, 2005, 263-264쪽

[바]: 자카리아 무함마드, 「열 번째 날의 호랑이」, 『팔레스타인과 한국의 대화』, 열린길, 2007, 165-169쪽.

4.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출제 의도

2019학년도 경희대학교 인문·체능계열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총 두 문제를 출제하였다. 고등학교 학력 수준에 맞추어 범교과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력, 논리적·분석적 추론 능력, 비판 능력 등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사고 능력 및 서술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논술고사에서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예술의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 예술의 상업성 문제’ 및 『국어』, 『문학』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문학의 기능과 현실 인식’, 그리고 『사회 문화』 교과서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화와 사회(예술, 가치, 규범)’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예술(문학)의 본질적 기능과 사회적 의미’를 탐색해 보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모든 예술은 저마다의 미적 형식을 가지고 현실과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예술은 심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지닌다. 이 중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쳤을 때 예술은 그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특정한 목적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예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논술고사에서는 문화와 예술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즉 ‘예술창작활동 그 자체에 몰두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제시문 [가])’, ‘예술을 포함한 문화상품이 그 자체의 본연의 가치를 상실하고 상업적 목적에 이용되는 상황(제시문 [나])’, ‘주체성과 비판정신을 잃고 파시즘과 같은 이데올로기에 휩쓸릴 위험에 처해 있는 예술의 모습(제시문 [다])’,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바람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제시문 [라])’, ‘현실에 무관심하며 예술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는 예술지상주의적 입장(제시문 [마])’, ‘현실과의 긴장 속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지키려는 예술정신을 보여주는 경우(제시문 [바])’ 등을 제시하고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측정해보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미래 세대를 짊어질 나날 짙은 학생들이 예술의 본질과 사회적 의미를 숙고함으로써 스스로의 주체성을 지키는 삶의 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고하고, 이 주체의 다각적인 측면을 성찰하는 교육적 효과를 도모할 뿐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과 지식을 발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술고사를 통하여, ‘예술의 본질적 기능과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님을 파악함으로써 협력적이고 구성주의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논술고사는 응시생들이 고등학교 교과서 및 잘 알려진 교양서적에서 발췌한 다양한 양식의 제시문들의 핵심을 파악하고 논리정연하게 답안을 서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각 텍스트를 개별적이며 고립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와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술고사는 다양한 성격의 제시문을 통하여 여러 텍스트를 관통하는 공통의 주제를 파악하고, 차이를 발견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수험생이 특정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을 논술 답안에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제시문의 관점을 파악하고 그 관점에서 다른 제시문의 내용을 분석·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것이다.

5.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문항 해설

본 논술고사에서는 경희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의 정형화된 패턴에 따라 총 두 문제를 출제하였다. 각각의 제시문의 출전은 다음과 같다.

[가]: 양귀자, 「이웃과 하는 상생과 공존」, 『고등학교 문학』, 미래원, 2014, 408-409쪽.

[나]: 노명우, 『계몽의 변증법-야만으로 후퇴한 현대』, 살림, 2005, 241-242쪽.

[다]: 서경식, 김혜신 옮김, 『디아스포라 기행』, 돌베개, 2016, 62-71쪽

[라]: 김수영, 「눈」, 『고등학교 문학』, 지학사, 2013, 243쪽.

[마]: 수전 손택, 이재원 옮김, 『사진에 관하여』, 이후, 2005, 263-264쪽

[바]: 자카리아 무함마드, 「열 번째 날의 호랑이」, 『팔레스타인과 한국의 대화』, 열린길, 2007, 165-169쪽.

각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실린 양귀자의 「이웃과 하는 상생과 공존」에서 발췌한 글이다. 지은이는 예술창작활동 그 자체에 몰두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그리고 있다. 많은 작품을 생산해 판매함으로써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예술성을 추구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김밥 마는 아줌마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나]는 노명우의 『계몽의 변증법-야만으로 후퇴한 현대』에서 발췌하였다. 인용 대목에서는 예술을 포함한 문화상품이 그 자체의 본연의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상업적 목적에 이용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묘사한다. 이 경우 예술적 완성도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유일한 관심은 이윤창출 가능성 여부이다.

제시문 [다]는 인문 교양도서 『디아스포라 기행』에서 가져 왔다. 인용문에 제시된 바그너의 작품은 음악의 너울거림에 감상자가 휩쓸리도록 한다. 그 결과 바그너의 선율에 도취된 개인은 주체성과 비판정신을 잃게 된다. 그리고 도취된 개인은 파시즘과 같은 이데올로기에 휩쓸릴 위험이 있다. 제시문은 현실과의 긴장을 잃은 예술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김수영의 시 「눈」이다. 이 작품은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서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바람을 노래하고 있다. ‘눈’은 화자가 지향하는 순수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거짓된 현실을 거부하는 비타협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침을 하자’라는 어구를 반복하여,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는 예술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제시문 [마]는 수전 손택의 『사진에 관하여』에 나오는 대목이다. 제시문에서는 현실과 단절된 예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사는 사진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과 현실적인 관계를 가지려 하지 않으며, 스튜디오의 사진작업을 사회와 격리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인용문은 현실에 무관심하며 예술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는 예술지상주의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바]는 『팔레스타인과 한국의 대화』라는 책에 실려 있는 아랍 작가 자카리아 무함마드의 에세이 「열 번째 날의 호랑이」에서 발췌하였다. 제시문에서 화자는 현실과의 긴장 속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지키려는 예술정신을 보여준다. 작가는 현실에 순응한 열흘째의 호랑이와 다르게,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고자 한다. 동시에 이 작가는 첫째 날의 호랑이와도 다르게, 현실에 대한 즉각적 대응에 거리를 둔다. 이 작가는 현실에 대한 순응과 맹목적 저항 모두에 거리를 둔다. 그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부조리한 현실과 투쟁하고, 동시에 싸움 자체에 매몰되지 않으며 인간다움을 지키려고 한다.

<문제 I>은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으로 자료에 대한 독해력과 비교·분석 및 서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문제 II>는 제시문 [바]의 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 [라], [마]에서 제시한 상황을 평가하는 문제로, 이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태도를 인문학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